



진안군청 김경민 주무관, 농촌활력분야 수상

진안군청 김경민 주무관은 지난 9일 전북농업인단체연합회(회장 노창득)가 주관한 '2023년 제1회 농생명산업대상 시상식'에서 활약있는 농어촌 부문에 선정됐다.

김 주무관은 '진안고원 촌스런 미을여행'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으로 독자적인 농촌관광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한 점을 인정받았다. 그는 촌스런 미을여행 프로그램 운영으로 관내 마을 10개소가 프로그램에 참여해 관내 관광객 4만5천 명, 매출 5억5천만원을 창출하는 데 기여해 마을공동체에 활력을 불어 넣어주는 역할을 했다.

또한 진안군청에서 근무한 지난 10여년간 140여건의 공모 사업에 선정 및 국도비 156억을 확보해 농촌관광 인프라 구축에 기여했으며,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운영지원은 물론 기관, 단체 13개소가 입주함으로 민간협력체계를 구축과 일자리 창출에도 큰 역할을 해오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한국산림기술사회, 장수서 사랑의 청소 봉사 펼쳐

한국산림기술사회(회장 최영규) 17명은 지난 10일 장수군 천천면 백세동안노인요양원을 방문해 사랑의 청소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한국산림기술사회는 2023년 하반기 총회 행사 중 하나로 관내 요양원 어르신들의 활동보조 및 시설내부 청소 봉사로 따뜻한 겨울의 운기를 전달했다.

이날 행사에는 장수군청 산림공원과 소속 최석원 팀장(한국산림기술사회 사무국장)과 이병태 팀장이 함께 참여했다. 최영규 회장은 "산림기술사들의 요양원 청소 봉사활동을 통해 큰 보람을 느끼고 있으며, 앞으로도 한국산림기술사회는 소외된 이웃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봉사활동을 이어 가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임실군, 미용업 영업자 위생교육 실시

임실군이 지난 9일 군청 농민교육장에서 미용업주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생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위생교육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미용업 영업자가 매년 3시간씩 이수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으로 대한미용사회 전북지회가 주관했다.

교육 내용은 △공중위생관리법 교육 △업소경영을 위한 소유 교육 △미용 기술 교육 등으로 구성됐다.

이날 대면 교육이 마련됨으로써 평소 온라인 교육이 어려운 영업주들이 법정의무교육을 쉽게 수료하는 유용한 기회가 됐다. /임실=진홍영 기자

제12회 진안군 어르신 생신상 차려드리기

진안군자원봉사센터, 100명 어르신 초청 진행… 마이산탑사·진안쌍봉사·붓다봉사단 후원

(사)진안군자원봉사센터(이사장 이재동)는 지난 10일 센터 소속 10개면 및 18개 단체 어르신 100명을 모시고 '제12회 진안군 어르신 생신상 차려드리기'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고령화 사회의 문제 중 하나인 홀로 외롭게 사시는 어르신들을 위해 마이산탑사·진안쌍봉사·붓다봉사단의 따뜻한 마음이 후원 사업으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는 생신을 맞이한 어르신 100명을 초청해 축하 케이크와 뷔페 점심으로 생신상을 차리고, 모든 참여자들에게 겨울의 한파를 녹일 수 있는 따뜻한 이불 세트로 마련한 생신 선물도 전달했다.

행사에서는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어르신 노래자랑도 진행하여 즐거움을 더했다.

전춘성 군수는 "세상의 빛으로 살아오셨듯, 더욱더 빛나는 내일을 위한 촛불을 밝혀 드리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말했다.

이재동 이사장은 "앞으로도 매년 생신을 맞는 홀몸어르신들에게 생신상을 차려 드리는 행사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 공동체 조성을 앞장서 따뜻한 사회 분위기 조성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청 김요한 주무관, 지방세 발전포럼 우수상

진안군청 김요한 주무관이 지난 9일 행정안전부가 개최한 '2023년 전국 지방세 발전포럼' 연구과제 발표대회에서 행정부부장관상인 우수상을 수상했다.

지방세 발전포럼은 매년 지방세 관련 분야의 전문가와 실무자들이 모여 지방 자주재원 확충과 효율적인 지방세 정운영을 논의하고, 17개 시·도 대표 연구과제 발표, 세미나 등을 통해 지방세정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이다.

김 주무관은 지난 6월 전라북도와 한국지방세연구원이 개최한 지방세 연찬회에서 대상을 수상해 전라북도 대표로 이번 포럼에 참가했다.

이날 발표대회에서 김 주무관은 '정보통신기술(ICT) 발전에 따른 지방세수 확대방안'이라는 연구과제를 통해 농업 분야에서 주목받고 있는 스마트온실에 대한 과세체계 확립과 세수 확대 방안을 제시하여 심사위원과 참가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 /진안=우태만 기자

김제 성덕면·안동 송하동 주민자치위, 자매결연교류 행사 가져

김제시 성덕면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최부호)와 안동시 송하동 주민자치회(회장 김효훈)는 지난 10일 성덕면행정복지센터에서 양 기관의 주민자치위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매결연교류 행사를 가졌다.

이번 교류행사는 지난 3월 자매결연 협약을 맺은 성덕면과 송하동의 상호 우호 증진 및 주민자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추진되었으며, 지역특산물 교류 및 주민자치 우수사례를 공유하며 더욱 돋보한 협력관계를 모색했다.

성덕면 주민자치위원회는 그간의 주민자치 특색사업(성이랑 떡이랑 카페운영, 밀반찬만들기, 김강나눔)을 발표하며 우수사례를 공유하였는데, 특히 송하동에서는 올해 개소한 성이랑 떡이랑 카페운영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벤치마킹의 뜻을 표하였다.

최부호 성덕면 주민자치위원장은 "지속적인 상호 교류를 통해 주민자치 역량을 증진시켜 함께 발전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온인석 성덕면장은 "교류행사를 위해 성덕면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행정에서도 성덕면과 송하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원활히 협력하고 소통하여 문화와 민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생발전하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남원소방서, 치매노인 미귀가자 발견 귀가시켜

남원소방서(서장 소재실)는 지난 10일, 수지면 일원에서 치매노인 실종신고로 경찰 공동과 합동으로 수색에 총력을 다한 결과 미귀가자를 발견해 귀가시켰다고 전했다.

미귀가자 수색은 수지면 일대에서 소방, 경찰 등 25명의

인력과 장비 8대가 동원됐으며 비까지 내려 추워진 날씨에 구조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총력을 다했다.

특히 앗간을 이유로 수색이 지연되기도 했지만 날이 밝은 후 수색을 재개해 실종 위치 일대를 집중 수색, 10일 10시 경 미귀가자를 발견해 신변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보호자에게 인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주매일

www.jimaeil.com
등록번호 전북 가00016

2009년 11월 23일 등록(일간)
(우)1560-912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4층 (서노송동)

발행·편집인 조봉성 부회장 김승곤 부사장 김양옥

• 대표전화 288-9700 • 업무국 FAX 288-9703 • 편집국 FAX 288-9704

전주지사
010-9845-4113
신천지사
010-2333-4791
서신지사
272-9417
호자지사
010-8845-9935

중앙지사 010-9088-6874
인후지사 246-6865
송천지사 255-2404
팔복지사 253-6844
군산지사 010-6789-0038
의산지사 858-9923

남원지사 632-3996
김제지사 545-1227
남원지사 632-0985
순창지사 653-0444
부안지사 010-2425-4182
고창지사 563-6999

임실지사 010-9642-2725
진안지사 433-3064
정읍지사 536-3787
장수지사 010-3682-6157
무주지사 010-2300-4253

*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인쇄인 이상현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임실 신평면, 직원과 함께하는 플로깅 활동 전개

신평면이 지난 9일 관내 등산로를 걸으면서 무분별하게 버려진 쓰레기를 수거하여 등산객과 주민들의 폐적하고 깨끗한 등산 환경을 조성하고자 직원과 함께하는 플로깅 활동을 전개했다.

플로깅이란 조깅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활동으로 스웨덴에서 시작된 운동으로 '줍깅'이라고도 한다.

이날 면사무소 직원들은 마을 이장들과 함께 신평면 원천리 소재의 등산로(안산)를 걸으면서 버려진 쓰레기를 주웠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소방서, 겨울철 소방 안전대책 추진

남원소방서(서장 소재실)는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겨울철에 발생하는 대형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지난 10일 전했다.

최근 5년간(2018년~2022년) 남원시에서는 총 216건(30.9%)의 화재가 겨울철에 발생해 이로인해 5명의 인명피해와 2,587백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으며 주요 화재원인은 부주의가 133건으로 전체의 61.6%를 차지했다.

이어 남원소방서는 겨울철 소방안전 대책으로 6대 전략 21개 중점 추진과제를 추진하며, 세부 내용은 △특정소방대 상물 자율안전관리 강화 △화재취약시설 중점 안전관리 △화재 위험요인 개선 △선제적 화재대응태세 확립 △지역 맞춤형 특수시책 등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

